

지역 매아리

김제시 보훈회관 개관식

김제 공무원 선거중립 실천결의

김제시가 지난 18일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해 부서별 주요현안업무를 점검하고 선거중립 의무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후전 시장권한대행은 그동안 AI 차단방역과 안전한국훈련에 최선을 다해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국가 예산 확보와 신규사업 발굴, 지방재정 신속집행, 선거사무 추진 등 당면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장권한대행이 직접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의 주요내용과 선거법 위반사례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후전 시장권한대행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김제시청 공무원 중 단 한명도 불필요한 오해와 구설수에 오르거나 선거중립 위반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강조하며 "이번 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짐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공무원 모두가 선거중립 실천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제시는 앞으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정치적 중립의무와 선거법을 위반 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지위고하와 행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대한상이군경회 김제시지회 등 7개 보훈단체 입주 완료

김제시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보훈단체의 오랜 염원이었던 보훈회관을 지난 2017년 12월말 리모델링을 완료 후 7개 보훈단체가 입주하여 개관식을 가졌다.

그동안 7개 보훈단체 사무실이 흩어져 있어 단체가 긴밀한 소통이 어려웠고 건물이 낡은 탓에 회원들의 불편이 많아 보훈가족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김제시는 구 교원동사무소를 도비 2억, 시비 4억으로 총 6억원의 사업비로 건축면적 674.4㎡의 지상 2층 규모로 리모델링을 완료했다.

안영규 김제시보훈단체협의회장(상이군경회장)은 "보훈회관 건립은 김제시 보훈가족의 오랜 염원이었으며 흩어져 있는 회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뻐했다.

김제시는 이날 보훈회관 광장에서 보훈단체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관식과 커피차의 행사를 벌



김제시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보훈단체의 오랜 염원이었던 보훈회관을 지난 2017년 12월말 리모델링을 완료 후 7개 보훈단체가 입주하여 개관식을 가졌다.

였다. 이후전 김제시장권한대행은 "보훈가족의 오랜 숙원 사업인 보훈회관 개관을 축하하며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과 화합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신미란 여성가족과장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 감사패 받아

노인회관 개보수·엘리베이터 설치 예산 확보 등 공로

김제시 신미란 여성가족과장은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로부터 노인회관 개보수 및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예산 확보와 그간의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회장 이종선)는 지난 17일 독립보초기(대표 이길재)의 후원으로 "세상의 소리를 여는 아름다운 동행, 어르신 한마당 잔치"를 열면서 그동안 노인복지회관의 숙원사업이었던 리모델링 및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신미란 여성가족과장에 감사패를 전달한 것이다.

신미란 여성가족과장은 "그동안 엘리베이터가 없는 2층 건물을 힘겹게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보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 가지 해소 방안을 모색하던 차

에 전라북도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매우 다행스럽다"고 말하고 "아직도 곳곳에 도움이 손길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과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에 모든 열정을 아낌없이 쏟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미란 여성가족과장은 1982년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36여년 동안 백구면장, 김산동장, 시립도서관, 민원소통과를 거쳐 2017년 7월 여성가족과에 부임한 후 여성친화적 리조성과 노인종합복지관 증축, 서남권 광역화장시설 인근 주민지원사업 등 굵직한 사업들을 무리 없이 추진하고 있어 주위로부터 탁월한 리더십과 업무 역량으로 김제시 공직사회에서 귀감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소비자 공공급식 시스템 홍보

서울도시농업박람회 참가 로컬푸드 홍보 '호음'

서울시 강동구와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완주군이 '제7회 서울도시농업박람회'에 참가해 공공급식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완주군은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2일간 서울시 강동구에서 열린 제7회 서울도시농업박람회에 참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도시농업박람회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도시농업과 일자리'라는 주제로 서울시와 강동구 주최로 열린 행사로 '씨 뿌리는 도시농업, 피어나는 일자리'라는 슬로건으로 미래 도시농업 분야에서 파생되는 일자리를 제시하고 도시농업의 대중화를 위한 국제컨퍼런스 및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완주군은 '강동구와 완주군의 행복한 급식'이라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및 완주군 공공급식 시스템에 대한 홍보를 진행했으며, 도시농업 직거래장터를 이용해 완주로컬푸드를 가공품 시식 및 판매를 실시해 서울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완주군이 '제7회 서울도시농업박람회'에 참가해 공공급식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특히 완주군 소이푸드사업단에서 국산콩으로 만든 무첨가물 두유 '진짜두유(진하게 짜낸 두유)'와 볶은 콩 '콩알꿀알'이 간식용으로 눈길을 끌면서 큰 호응을 받았다.

행사에 참석한 송이목 농업농촌사업 및 완주군 공공급식 시스템에 대한 홍보를 진행했으며, 도시농업 직거래장터를 이용해 완주로컬푸드를 가공품 시식 및 판매를 실시해 서울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안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해 5월 강동구와 '도농상생 공공급식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통해 강동구 어린이집 95개소 4610명의 아이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산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15만 완주시 대도약 이뤄낼 것"

박성일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성황리

박성일 더불어민주당 완주군수 후보가 19일 선거사무소를 개소하고, 6.13 지방선거 승리를 향한 본격적인 민심 다지기 나섰다.

박성일 후보는 이날 봉동읍 둔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완주군수 재선을 통해 15만 완주시 대도약과 함께 평화와 지방분권의 새시대를 주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선거사무소에는 안호영 국회의원(완진부장), 임명환·최충일 전 군수 등 의원과 지지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해 박 후보의 당선을 응원했다.

또한 정세균 국회의장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규백 민주당 최고위원, 신경민 국회의원(서울 영등포울), 장영달 우석대 총장 등은 영상 축하 메시지를 통해 선거사무소 개소와 지방선거 승리를 기원했다.



박성일 후보는 "리더는 주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실행력도 겸비해야 한다"며 "앞으로 15만 완주시로 도약하는 것은 물론, 군민의 소득도 더 올리고, 삶의 질도 더욱 높여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완주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백석초등학교 여름술찬교실

김제백석초등학교(교장 이순봉)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2018년 계절학교 '여름술찬교실'을 열었다.

전교생 97명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여름술찬교실은 재봉, 요리, 목공, 손뜨개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비롯, 1박2일 학교 야영을 통해 학생들

의 소질과 능력 계발은 물론 긍정적 자존감을 길러주고 공동체 의식 배양을 목적으로 해마다 운영되고 있다.

올 해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제작한 평상과 수세미, 접시, 예코백 등 생활용품은 요촌동 흥박마을에 전달하고 마을 어르신들에게 맛있는 부침개 요리를 대접하는 등 재능 기부 활동을 펼쳐 지역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진심 홍삼주